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28(화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 항공산업과	담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성호철, 사무관 좌명환, 주무관 오영석 • ☎ (044) 201-4231, 4223 	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올림픽 코앞인데.. 양양공항 항공기 증편 빨간불” 보도 관련

- 평창올림픽 기간 중 인천~양양 운항항공사 지원, 전세기 운항 협의, 운항중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항공운송 지원과 플라이양양 면허심사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더욱이, 면허심사후에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운항증명*(AOC), 국제선 취항 협의** 등을 거쳐야 하므로 플라이양양의 올림픽 관람객 수송은 당초부터 어려웠으며, 플라이양양측 관련 계획도 없었던 상태입니다.
 - * 운항증명(AOC: Air Operator Certificate) 안전조직·인력·장비·시설점검, 현장실사, 시험비행 등 운항체계 정밀검사(취득전 취항 불가)
 - ** 면허·AOC 취득 후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노선·슬롯·운임허가, AOC 확인 등 안전운항 절차와 조업준비 등 필요

< 관련 보도내용(매일경제, 11.28) >

◆ 평창 동계올림픽 코앞인데... 양양공항 항공기 증편 빨간불

- 국토부가 면허심사를 연장하면서 8월 면허발급 후 평창 올림픽 관광객 수송에 나설 예정이었던 플라이양양과 강원도측 계획에 차질 발생
- 강원도는 면허 반려시 올림픽 기간에 인천~양양 운항항공사에 대한 손실보전, 운항 항공사 지원, 올림픽 기간 전세편 운항 협의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좌명환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